

화해의 사람들

김동수 반희영 윤성 수현 84 번째 아프리카 이야기

화해의 사람들 (People of Reconciliation): 에베소서 2:13-18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심을 본 받아 김동수 선교사 가족이 아프리카 땅에서 이 화해의 사람들이 되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사이트 비 (Site B) 교회 어린이 교회를 소개 합니다.

사이트 비 라는 것은 이 지역 이름이고,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도 그렇게 자연 스럽게 지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목회자 훈련원을 졸업한 파티(Fati) 라는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입니다. 이 지역은 철판으로 지은 집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2년전 파티 목사님이 목회자 훈련원을 졸업하고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어린이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건물은 이 지역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 마을 회관 같은 용도로 지어진 작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건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어린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매주 아이들이 교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제 차가 동네 골목에 들어 서면 아이들이 알아보고 교회로 뛰어 오곤 합니다.

아직 교회 건물이 나무 판자와 철판으로 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때면 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지역 아이들이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씩씩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이 어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계속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지난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최근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전기가 부족해서 하루에도 2,3번씩 정기적으로 정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정전이 되면 2시간 30분 정도 전기가 끊어 집니다. 이 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특히 제일 심각한 부분은 치안 문제 입니다. 원래도 이곳이 치안 문제가 심각한데 매일 거듭되는 정전으로 인해 더 치안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고, 제가 사역하는 흑인 지역은 넘쳐나는 사건사고들로 불안이 극대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제목

1. 남아공의 정치, 경제의 안정을 위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과 치안문제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2. 목회자 훈련원의 학생들을 위해- 사역과 삶에 균형이 있고 이 땅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길
3. 어린이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으시길..
4. 윤성이(고2) 진로를 위해- 대학진학을 포함한 모든 인생 여정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길...
5.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